

완도 명사십리, 국제 관광지 된다

다도해해상공원 지구 해제...사계절 관광지 개발 계획 확정 郡, 2012년까지 3,353억 투입 호텔·자동차 야영장 등 조성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지구가 최근 '관광지 개발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완도군이 사계절 국제 관광지로 개발키로 했다.

전남도는 최근 완도군의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오는 2012년까지 사업비 3천 353억원(공공 109억원, 민자 3천244억원)을 투입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지난 28년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지구로 묶여있는 바람에 편의 시설 등을 개발할 수가 없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완도군은 이러한 점을 감안, 정밀 타당성 조사 끝에 중앙정부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는 물론

개발관리 등의 문제점을 강력 건의해 지난 2004년 개발 감독관리권을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완도군은 앞으로 67만4천280㎡에 달하는 명사십리 지구에 ▲관광·휴양시설 ▲숙박시설 ▲공공시설 ▲상가시설 ▲녹지 등을 고루 갖춰 전국에서 제일 가는 해수욕장은 물론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한다.

관광·휴양시설은 11만2천393㎡부지에 3천267억3천200여만원을 투자해 호텔, 콘도미니엄, 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추게 된다.

또 자동차 야영장, 도로, 화장실 및 샤워장, 이벤트 광장 등 공공시설은 국비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려대학교 수련원, 해조류 기능성 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해양레저 스포츠 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관광 휴양시설도 들어선다.

모든 건축물은 일조 및 풍향을 고려해 남향 배치를 원칙으로 전통 건축(한옥) 양식이 도입되며 소나무와 배롱나무, 영산홍 등 고유의 향토미를 풍기는 수종 8종 3천100여주를 심을 계획이다.

명사십리는 폭 150m, 길이 3.8km에 달하는 천혜의 금빛 모래사장을 갖췄으며 경사도가 완만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 해수욕장이다.

특히 지난 2005년 12월 완도~신지간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해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만 100여만명이 찾았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신지 명사십리는 깨끗한 바다와 금빛모래를 갖춘 서남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이라며 "이러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걸맞게 개발해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남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완도 명사십리가 콘도미니엄과 펜션, 호텔 등을 갖춘 4계절 관광지로 개발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LPGA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한 신지에 선수가 11일 영광을 방문, 군청 앞에서 모교인 흥농중학교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브리티시 여왕 신지에 왔다” 도내 곳곳 환영 물결

11일 영광·전남도청 이어 오늘 함평서도 환영 행사

LPGA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지가 (20)선수가 '금의환향했다'.

신지에는 11일 오후 영광군청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을 시작으로 환영 퍼레이드에 이따라 참석했다.

신지에는 군청 앞 환영식을 마치고 모교인 흥농중학교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였으며, 흥농중을 방문한 뒤 흥농읍에 있는 모교의 묘소를 찾았다.

신 선수는 광주에서 태어나 영광 흥농초교와 흥농중학교를 졸업

했으며, 중학교 3학년 때인 2003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

신지에는 이어 전남도청을 방문해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받았으며 '전남도 명예 흥농대사로' 위촉됐다.

신지에는 12일에도 함평군청과 모교인 함평골프고등학교를 방문해 환영식과 카퍼레이드에 참석하게 된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여수 자전거 15대 비치 시민에 무료 대여

여수시가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한다.

여수시는 제 1청사(학동청사) 종합민원실 입구에 자전거 15대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으며, 다음달 중 여수청사에 추가로 자전거 15대를 비치한다.

종합민원실 관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전거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시내 주요 지점에 자전거를 추가로 비치할 계획이다.

바가지 상흔에 관광지 불결 “엑스포 도시 맞나?”

여수 찾은 관광객들 시청 홈페이지에 불만 쇄도

여수시 일부 관광지과 음식점이 불결하고 바가지 요금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

특히 만성리와 방죽포 등 여수 대표 해수욕장의 음식값이 너무 비싸고 수질도 깨끗하지 못해다 여수 관문인 여수역 택시 정류장 일대에서 공공연히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외지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오동도 화려한 공중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는데다 모기가 득실거

리는 등 불결해 여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마 전 방죽포해수욕장을 찾은 이 모씨는 “해수욕장에 죽은 물고기와 고무장갑, 생활용품, 비닐봉투가 동등 떠다니고, 심지어 인근 치킨집에서 버린 닭털까지 동등 떠다니 너무 더러웠다”며 “올 여름 여수에 처음 왔는데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다”며 여수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고향인 여수라고 밝힌 김모씨는

“여수에 와 보니 이곳이 엑스포 개최 도시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관광객이 없었다”면서 “만성리해수욕장과 무술목 유원지에서 주차료는 따로 받으면서 와상을 빌리는데 5만원을 받고, 음식 값이 너무 비쌌다”고 바가지 상술을 비난했다.

오모(여)씨도 “친정 부모를 모시고 늦은 저녁을 먹기위해 모 횡포를 찾았으나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고, 밀반찬과 음료수가 떨어져 제대로 음식 제공이 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짜여 있었다”며 “이를 주인에게 항의했더니 오히려 큰 소리로 자기 주장만 늘어놓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조용한 카리스마’... 투자유치 20여건 직간접 수행

‘민선 이후 전남 최장수 부군수’ 이호경 함평 부군수

지난 2006년 1월 취임한 이호경(53) 함평 부군수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전남 최장수 부군수로 기록되고 있다. 이 부군수는 올해 초와 지난달 전남도 서기관 인사에서 이동이 유력시 됐으나 이석형 군수의 요청으로 인사가 보류돼 부군수 재직기간이 3년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단체장 선출이후 전남지역 부군수들은 1~2년 근무 후 인사 이동돼 3년째 재임하고 있는 경우는 이 부군수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군수는 부임 이후 전남도 통상협력과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

려 (주)대선제분 합평공장을 비롯해 (주)삼천리(140억), 이푸론(130억), (주)솔라플러스, (주)에스엘 광주 월광교회 대안학교(200억) 건립 등 수많은 직·간접 투자 유치에 기여했다.

또 농촌활력증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등 함평군이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추진력을 발휘해 왔으며 열악한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상대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부군수는 “2008 함평 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 개최 이후 함평산 농수산물의 인지도가 급상승해 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군수는 조용한 카리스마를 지닌 해결사이자 형님같은 선배 공무원으로 불린다.

군청 3도 과장은 “빈틈없는 업무 수행으로 직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해남 출신으로 78년 전남도 지방행정 7급 공채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이 부군수는 또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경제통상실 경제자유구역추진 기획단장, 통상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희망광산 나눔운동’ 9천800여만원 모금

저소득층 1,314명에 도움

광산구가 펼치고 있는 ‘희망광산 나눔운동’이 저소득층 1천300여명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광산구는 후원자를 발굴해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과 연계하는 ‘희망광산 나눔운동’을 지난 1월부터 추진해 왔다.

지난달 31일 현재 매달 일정액을 기탁하는 인원은 기업체 포함 206명이며, 모금액은 현금과 현물 등 9천 800여만원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희망광산 나눔운동’으로 도움을 받은 저소득층 주민은 모두 1천314명에 달한다.

매달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받는 인원은 73명에 달하며 1천500여만원이 본인 통장으로 송금됐다.

다급한 일을 당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현금 지정 기탁 수혜자는 121명으로 5천400여만원이 전달됐다.

이밖에 쌀을 비롯해 명절 제수용품 등 2천700여만원 상당의 다양한 물품이 1천120명에게 기탁됐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이주여성 가족에 항공권 전달

농협 곡성군지부 모국방문 지원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지부장 이원호)가 국제결혼을 통해 관내에서 가정을 이룬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모국 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곡성군지부는 최근 필리핀 출신 외국인 이주여성과 일가족 4명의 왕복항공권과 여행자 보험 및 체제비 5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곡성군지부는 농협문화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지난해부터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모국 방문을 지원해 왔다. /곡성=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2~14일, 8·15 경축 사이클 대회 이어 인라인대회도

나주에서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 및 8·15 경축’ 전국도로실업 사이클 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나주시 일대 도로에서 열린다.

나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실업사이클연맹과 전남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25개 남녀 실업팀

과 일본, 대만 3개 팀 등 선수와 임원 400여명이 참가한다.

시는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도로정비를 마친데 이어 경기가 진행되는 주요 구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제 28회 대한체육회장애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롤러대회가 오는 19

일부터 나주 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500여명의 선수 등 1천여명이 참가할 가운데 열린다.

2007년 7월에 착공해 이달 준공되는 나주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현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제 89회 전국체육대회도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

나주시는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국제대회 등 대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장성 사과·단감 ‘탐 프루트 프로젝트’ 선정

장성 황룡 사과작목반과 삼사 단감작목반이 농촌진흥청의 ‘탐 프루트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탐프루트 프로젝트’는 농진청이 유관기관과 단체, 농업인 등과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지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기술지원단을 운영해 전국 최고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황룡 사과작목반과 삼사 단감작목반은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1억원씩 모두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또 매월 탐프루트 기술지원단의 현장 컨설팅과 함께 사과·단감 재배 매뉴얼에 의한 인공수분, 적과, 적정시비 및 병해충 종합관리 등 과학영농기술을 통해 최고 품질의 과일생산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의 대표 과일의 사과와 단감을 보다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전국 최고의 과일생산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순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20일부터 통합 운영

순천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오는 20일부터 ‘순천 종합버스터미널’로 통합, 운영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전일고속과 금호터미널(주)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 운영키로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 매곡동 고속버스터미널 기능을 장전동 시외버스터미널로 이전한다.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통합되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연계돼 시민들이 한층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섬진강 수증보에 신개념 ‘어도’ 설치

익산국토청, 28억 들여 물고기 이동 불편 개선

섬진강 500리 길 모든 구간에 물고기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어도(魚道)가 설치된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최근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에 위치한 섬진강 수증보에 신개념 어도를 설치했다. <사진>

이번에 설치한 신개념 어도는 한강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경사도를 0.6~1.4도로 크게 낮추고, 항상 일정한 수위와 유속을 유지하는 등 물고기의 이동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 회유성 어류의 이동불편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생태관찰결과 수증카메라를 설치해 생태환경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체험학습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 의식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